



"키워드"로 보는

농평민들의 12월

"키워드"로 보는 **농평이**들의 12월

보다 Teach 축하하다 Live
배우다 Learn 함께하다

Again 살다 Meet

만나다 See 가르치다

다시 Celebrate Together



홈스테이Homestay(1201-1203)



갑작스레 가게 된 홈스테이!

처음엔 딱딱한 바닥, 많은 모기들이 힘들었지만
어느새 적응한 놈팡이들!

매끼 맛있는 밥도 먹고 가족들과 망고도 따 먹고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Reflection

모기가 많아서 모기에 너무 많이 물렸다. 원래는 매일 밥을 해먹다가 홈스테이에서 밥을 챙겨주셔서 좋았다. 같이 지낸 할머니가 새벽 3시부터 일어나서 준비해서 장사를 하러 가시는 걸 보며 진짜 일찍부터 준비한다는 생각이 들었다.

성

은

현지 가정식을 먹어볼 수 있어서 좋았고 할머니와 함께 지내다보니 우리 할머니가 생각났다.

굉장히 좋은 경험이었으나 다양한 이유로 갑작스레 가게되었던 홈스테이라 마음에 안들었다.

진

지

홈스테이때 처음으로 아팠었는데 할머니가 밥도 챙겨주시고 방에 쿨팩이랑 약도 챙겨주셔서 감동을 받았다. 항상 밥은 맛있었다.



중간평가 MiddletermEvaluation(1201-1210)

MCA3
@123



한국에서 반가운 얼굴들이 찾아왔어요!

많은 이들의 박수 속에 무사히 중간 평가를
마치고 간사님들과 오붓한 시간도 보냈지요.



그동안의 생활을 되돌아보며
앞으로의 모습을 다같이 그려보았던 시간.

앞으로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남은 시간을 채워갈까요?

Reflection

중간평가를 준비하며 긴장도 하고 부담감도 컸는데 중간 평가가 끝나고 나니 굉장히 후련했다. 그리고 간사님들과 맛있는 밥도 먹고 깊은 이야기도 나누며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다.

성

은

중간 평가기간 내내 배고플 틈이 없어서 좋았고 현지어 발표를 맡아서 여러 사람의 도움과 함께 해냈다는 사실에 뿌듯함을 느낀다.

진

중간평가 전까지 잘해야 한다는 부담을 느끼며 생각이 많고 스트레스도 많았는데 중간평가때 간사님과의 이야기를 통해 무거운 마음을 내려놓으면서 스트레스가 줄고 부담이 덜해졌다.

지

중간평가 기간동안 간사님들과 이야기 하면서 마음도 채우고 맛있는 것도 먹으면서 배도 채워서 행복했다.

“축하하다”

레잉생일Leng B-day(1212)



어느새 찾아온 LENG의 생일!

생일이라 모처럼 비싼 도미노피자도 가고
맛있는 케익도 나눠먹었어요.

LENG의 미소가 누구보다 행복해 보여서
참 다행이네요.

“가르치다”

길거리아이들교육Teaching SCP(1212-1219)



호주에서 오신 봉사자분들과

아이들과 함께 갔던 워터파크!

모두가 잔뜩 신이나 너무나도 즐겁게 놀고 왔어요.

덕분에 아이들과 무척이나 친해질 수 있었어요.

앞으로의 교육도 잘 할 수 있겠죠?



영어와 다양한 게임을 함게하여 수업시간을
즐거운 시간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는 우리 농평이들.
그리고 아이들의 열성적인 태도 덕에
항상 수업시간엔 웃음이 끊기지 않습니다.

Reflection

길거리 아이들이라고 해서 차별을 두진 않았지만 달려와서 안기는 아이들이 청결하지 못한 모습으로 와서 거부감이 들었다. 학교 화장실에는 불도 안 들어오고 교실은 어둡고 환기도 안되어서 시설이 매우 열악하다는 것을 몸소 느낄 수 있었다. 수업할 때마다 교실 문 밖에서 서성이며 수업을 밖에서 지켜보는 아이들이 있었는데 공부를 하고 싶은데 못 들어 오는건지, 신기해서 바라보는건지 모르겠지만 그 아이들이 신경이 쓰였다.

성

은

누군가의 눈부신 눈을 볼 수 있다는 게 감사했다. 한국에서 온 저 사람과 오늘은 무엇을 할까 기대하는 눈으로 나를 봐주는 아이들이 참 고마웠다.

Reflection

길거리 아이들이라고 생각해서 그 상황을 특별하게 여기거나 딱하게 여기지 않아서 불쌍하다고 하거나 동정하는 사람들을 이해하지 못했었다. 하지만 팀원이나 다른 사람들과 이 아이들에 대한 생각과 느낌을 나누면서 그런 사람들의 생각이 이해가 가게 되었다.

진

지

속이 안 좋았을 때 교실이 환기가 안되어 들어가지 못했던 적이 있다. 왜인지 아이들에게 괜히 미안했다. 그래도 그러고 나서는 최대한 편견을 갖지 않고 아이들을 대하려 노력했고 나름대로 괜찮았다고 생각한다.



씨엠립보육센터 SiemreafChildcareCenter **(1220-1227)**



아이들을 교육하러 갔는데

오히려 참 많은 것들을 배우고 온 씨엠립 보육센터.

누구보다 해맑은 아이들과 그 가운데에 있는
에스더 선생님의 모습이 참 예뻐어요.



Painting



Gardening

오전엔 교육하고 오후엔 센터를 꾸미는 다양한 활동들.
일주일이었지만 무지하게 의미있던 시간들이었어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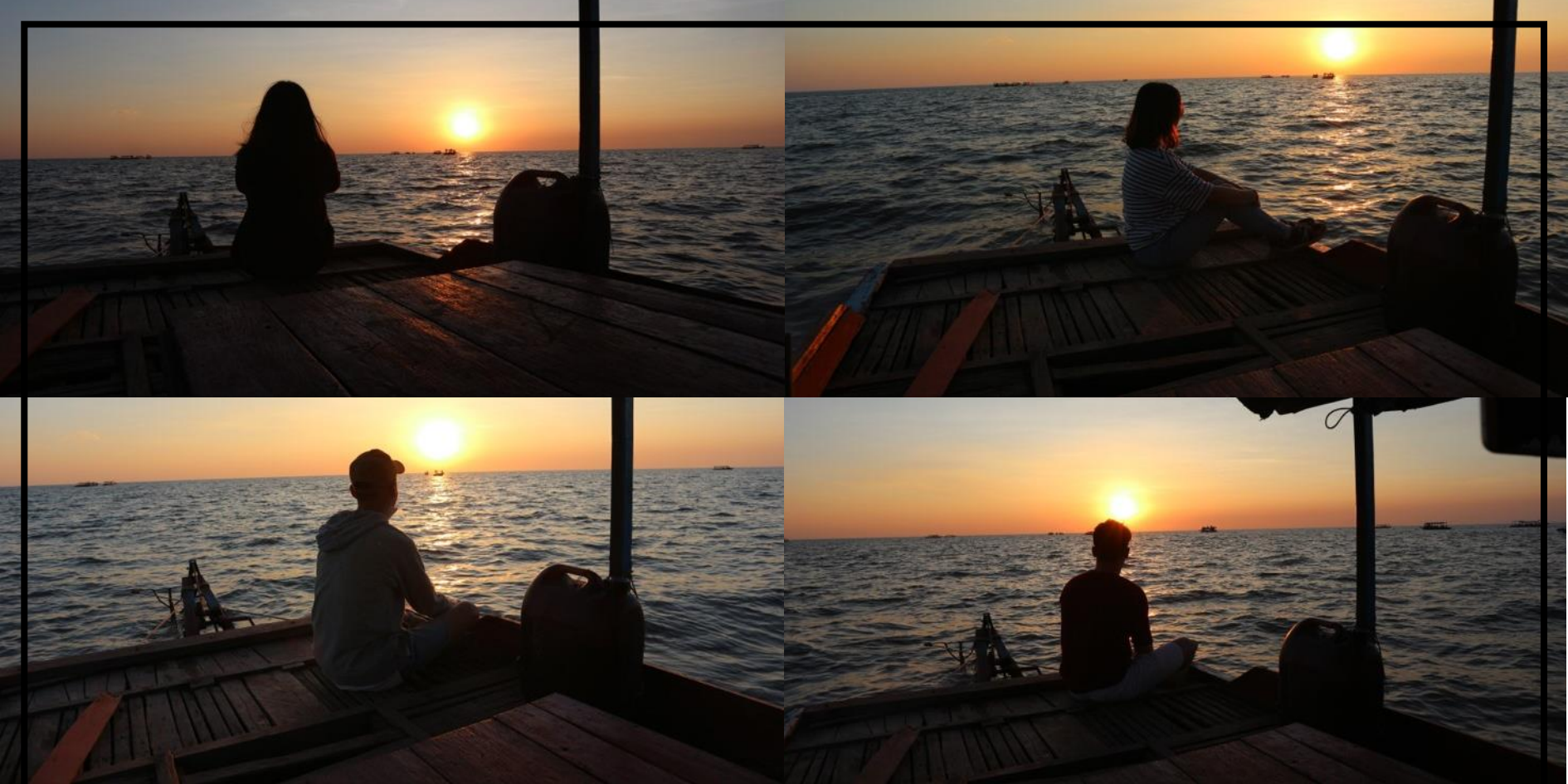
Visiting children's house



특히 아이들의 집과 동네를 방문할 때
우리들은 참 많은 것들을 느꼈어요.

돈이 부족해서 지붕이 없는 집,
낮에도 만취한 아버지들.

여러분은 어떤 생각과 느낌이 드시나요?



모든 활동이 끝난 저녁시간!

우리는 우리를 위한 시간을 보냈어요.

주말엔 다같이 톨레샵도 가보며

다시 온 씨엠립을 만끽했어요.

Dae leng(산책)은 언제나 즐겁답니다~

Reflection

성

씨엠립 센터에서 지내면서 8시부터 수업을 시작하는데 부모님의 출근으로 인해 아침 6시 30분부터 아이들이 와서 일찍 일어날 수 밖에 없었다. 아이들의 집에 방문했을 때 캄보디아에서 가장 상황이 열악한 집을 보았던 것 같다. 지붕이 없는 집이 였고 비가 오면 지붕없이 지낼 모습이 상상되면서 굉장히 안타깝고 인상깊었다.

은

센터에서 일하는 에스더의 모습이 기억에 남는다.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아이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아껴주는 모습이 인상깊었다.

Reflection

에스더를 보며 많은 것을 느꼈다. 에스더가 아이들을 사랑하는 마음의 반만이라도 닮았다면 내가 괜찮은 사람이 되지 않을까 라는 생각이 들었다. 지금은 한참 부족한 거 같았다. 그리고 에스더 같은 사람이 진짜 봉사를 하는 사람이구나 하고 느꼈다. 더 빨리 에스더를 만나지 못한 것에 대해 굉장히 아쉽고 더 일찍 만났다면 보다 많은 것을 느끼지 않았을까 싶다.

진

지

씨엠립에서 딱 일주일 있었는데 오후마다 다른 활동을 하여 일주일 이상의 시간을 보낸 거 같아서 좋았다. 아이들을 만나면 항상 너무 행복해서 아직도 그 아이들이 그립다. 씨엠립에서의 시간은 내가 많은 것을 보고 느낄 수 있었던 힐링의 시간이었던 거 같다.



크리스마스Christmas(1217, 1225)



다가오는 크리스마스!

캄보디아에도 찾아왔어요.

눔펑이들은 현지 코디의 초대로

현지 교회에서 함께 크리스마스를 축하했어요.



진짜 25일은 씨엠립에서 보내게 된 농헝이들.
씨엠립 센터 선생님이 교회로 초대해주셔서 다양한
공연도 보고 비싸고 맛있는 뷔페도 즐길 수 있었어요.
외롭지 않은 농헝이들의 크리스마스였어요.

Reflection

성

크리스마스를 외국에서 보낸게 처음이고 또 많은 외국인들과 함께 보낼 수 있어서 새롭고 즐거웠다.

은

더운 이곳에서 나무에 휴지 눈이 내린 또 다른 화이트 크리스마스를 보낼 수 있어서 즐거웠다.

진

재밌게 놀았다. 한국과 캄보디아 교회는 비슷하고도 다르구나 싶었다. 크리스마스를 기념해 씨엠립에서 펌스트리트에 있는 클럽을 갔는데 굉장히 이국적인 모습에 기분이 매우 좋아 아주 신나게 춤을 췄다. 하지만 내게 주어진 시간이 많지가 않아서 정말 아쉬웠다.

지

따뜻한 크리스마스가 실감이 나지 않으면서도 새롭고 나름 재미있었다.

"함께하다"

연말파티 | **CambodianParty** (1229, 1231)

어느덧 1년이 끝나가 연말이 다가오며
스태프들과 조출한 파티를 열었어요.
다같이 돈을 모아 맛있는 걸 먹고
캄보디아 춤도 추며

즐거운 시간을 보냈어요.





진짜 1년의 마지막날.

1년간 Y의 활동을 함께했던 청년들과 모여 이야기도 나누고 게임도 하며 1년을 마무리 하였습니다.

12시에는 다같이 리버사이드에서 불꽃놀이와 함께 카운트 다운을 하며 새해를 맞이했지요.

Reflection

외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는 것도 처음이다

성

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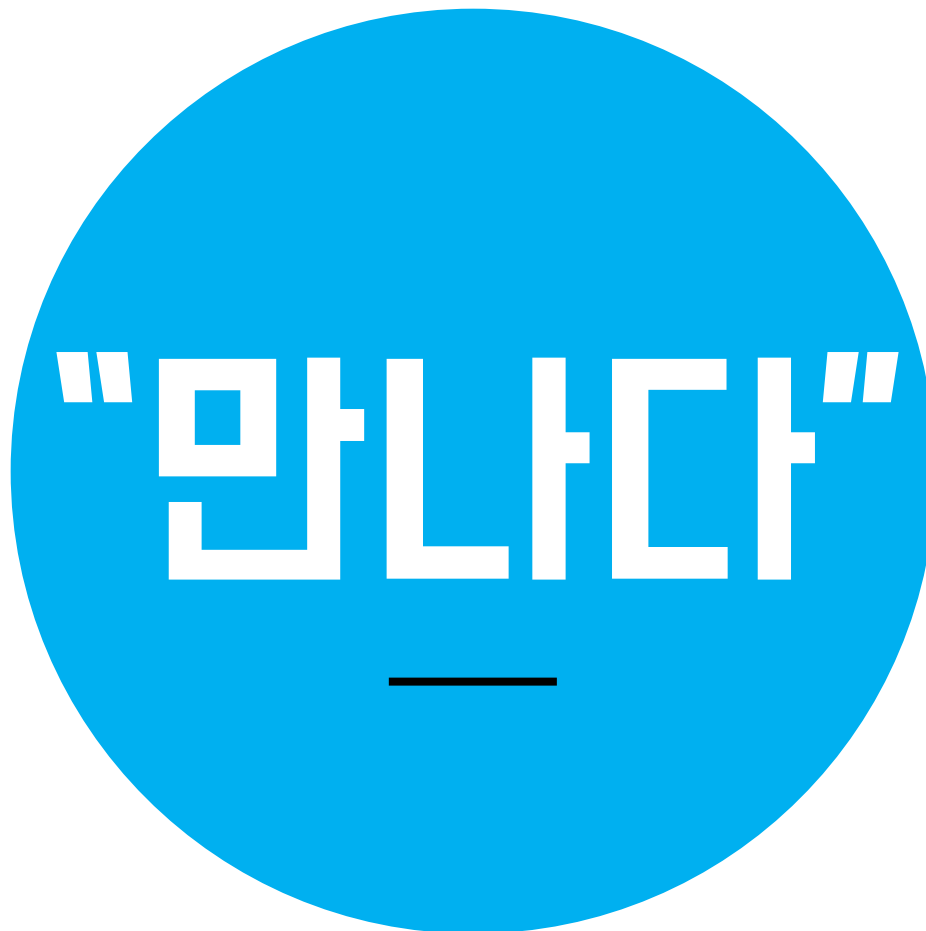
9월부터 12월까지 4개월이었지만 함께한 2017년을 함께
마무리 할 수 있어서 의미있었다.

올해도 외국에서 새해를 맞이하니 한국에서의 새해가
그리워졌다.

진

지

연말파티라는 명목으로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어서 좋았고
캄보디아 식의 파티를 즐길 수 있어서 흥미로웠다.



김정민활동가KoreanVolunteer(1230)



한국에서 온 김정민 활동가! 지금 미술 수업 중인 걸까요?

“거리의 쓰레기 줍는 아이들을 없애자!” 프로젝트를 하고있대요.

길거리의 폐박스를 활용하여 캔버스천과 함께 이젤로 만들어서
재활용도 알려주고 이젤도 판매하여 폐상자보다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게 교육하는 거예요.

정말 멋지지 않나요?



활동 후엔 김정민 활동가님의 배려로 함께
점심도 먹고 같이 킬링필드도 같이 가고
저녁도 함께하었어요.

덕분에 하루 종일 좋은 시간을 보낼 수 있었어요.

Reflection

김정민 활동가와 함께 하시는 관계자들과 많은 이야기를 할 수 있어서 좋았고 대학생인 우리에게 한사람한사람에 맞춰 이야기를 해주어서 좋았다

성

은

라운아띠의 신분으로 캄보디아에 와 있었기에 만날 수 있었던 분들이다. 다시 한 번 라운아띠로 이곳에 와있는 것에 감사했다. 한참 진로에 대한 고민이 많았던 요즘, 생각의 폭을 넓힐 수 있는 기회가 되었다.

그냥 그랬다.

진

지

김정민 활동가의 프로젝트가 인상깊었고 나도 저렇게 할 수 있을까 고민해 보게 되었다. 그리고 덕분에 하루종일 잘 돌아다니고 맛있는 것도 먹을 수 있어서 배부르고 좋은 하루였다.

“느끼다”

—

개인소감PersonalReflection

Nico_성열

12월은 2017년을 마무리 했던 달로
나에게 2017년에 가장 큰 행운은
라운아띠에 합격한 것이다. 평범한
대학생으로서 새로운 경험을 하고
함께 고민하고 문제를 풀어보고
해결하는 많은 일들이 있었다.

우리들의 활동 중 가장 인상적이었던 것은 씨엠립에서 아이들의 집을 방문했는데 지붕이 없는 집을 발견했을 때이다. 지붕을 올릴 돈이 없어 지붕없이 모기장과 그 위에 얇은 천으로 지붕을 대신하고 비가 오면 자면서 가족 뿐만 아니라 집에 있는 모든 물건들이 비를 맞겠지 라는 생각을 했었다. 굉장히 안타깝고 심각하게 느껴졌다.

Nico_성열

씨엠립에서 운영되는 아이들을 보호하는 센터가 일년에 250달러로 운영 된다고 한다. 씨엠립은 앙코르와트로 인해 많은 관광객이 찾아오는 관광지이다. 눈부신 관광지 이면에 씨엠립의 모습과 캄보디아의 현실을 마주하게 되었다 나는 과거 어려운 사람들을 봐도 ‘내 인생부터 발전해야지 내 앞가림도 못하는데’ 라는 생각이 많았었다. 하지만 직접 눈으로 보고 만나고 느끼면서 ‘돈을 벌게 되면 적어도 꾸준히 누군가를 위해 기부를 해야겠다’ 라는 생각이 들었다.

Koma_진호

나에게 12월달은 새로운 마음가짐을 가지고 시작하는 달이다.

나라는 존재를 생각하게 되고 그간에 내가 짊어졌던 부담감과 스트레스를 조금이나마 더는 그런 하루를 보냈다. 솔직하게 나는 봉사하러 갔지만 도와줘야 되겠다는 마음이 정말 하나도 없었다. 그래서 활동에 대한 성취감, 뿌듯함을 잘 못 느꼈다. 이에 대한 감정을 내가 느끼지 못해서 솔직히 내가 정서적으로 문제가 있는 줄 알았다. 근데 이번달을 들어서서 생각이 조금 바뀌었다.

Koma_진호

왜냐하면 시애플 보육원에서 에스더
현지 코디네이터 만났기 때문이다. 이
것이 하나의 터닝 포인트가 됐다. 처음
에는 그냥 별 생각없이 그냥 아이들을
케어하는데 가는구나 생각이 들었지
만 에스더가 아이들을 케어하는 그 마
음이 정말 나에게 크게 다가왔다. 항상
아이들을 생각하고 지역주민들을 생
각하는 모습을 보니까 정말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깊게 생각하시는구나
라는 생각이 들었고 부러웠다.

Koma_진호

왜냐하면 나도 에스더의 마음의 반만
담았으면 괜찮은 사람이 될 수 있을
것 같더라는 생각이 들었기 때문이다.
그것이 꼭 아이들과 지역주민들을 생
각해서 마음이 좋게 보이는 것이 아니
라 사람들을 대하는 그 진심에 감동을
받았다. 이제까지 캄보디아에 있으면
서 그런 진심이 느껴지는 마음을 가지
게 된 사람을 알게되서 정말 기뻐고
뿌듯했다. 아무런 감정없이 한국에 돌
아갈까봐 조금 불안함이 있었는데 사
라졌다.ㅎㅎ

Koma_진호

처음으로 사람을 진심으로 응원해주
고 싶고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생겼던
달이었다. 이런 감정을 느끼게 해줘서
그저 고마울 따름이다.

Leng_은선

지난 여행 이후 두번째로 씨엠립에 방문하게 되었다.

일주일 간 우리는 YMCA Childcare Center에 머물면서 아이들과 시간을 보냈다. 아이들 교육과 센터 페인팅, 정원 가꾸기, 그리고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활동 등을 하게 되었는데, 그중 가장 인상깊었던 활동은 아이들의 집을 방문하는 것이었다. 아이들이 지내는 곳을 방문하면서 스쳐 지나간 질문, 우리를 왜 여기에 보냈을까?

눈 앞에 보이는 건 쓰러져가는 집에서 다섯 식구가 밥을 해먹고 옷을 입고 씻고 잠을 자는, 돈이 없어 지붕을 올리지 못한 집들인데 굳이 우리를 지원해서 이곳에 보낸 이유가 무엇일까 고민하게 되었다. 우리를 지원하는 돈으로 이들에게 가장 필요한, 직접적인 도움을 줄 수 있을 것 같은데 굳이 우리를 이곳에 보낸 이유. 만약 당장 눈 앞에 보이는 것 이상으로 더 큰 인적 자원을 기대하는 것이라면 나는 과연 그런 사람이 될 수 있을까? 안타까우면서도 심란했던 기억이 난다.

Leng_은선

라온아띠로 살아가면서 불편함을 배워간다. 특별히 나에게 12월은 그런 불편함을 몸소 느끼게 된 시간이었다. 그런데 이런 불편함을 삶에서 살아내기가 참 어렵다. 늘어만 가는 불편함을 자발적으로 실천하며 살고 싶지만 나는 이성보다 육체의 쓰루얼함을 추구하는 사람인 것을..! ('쓰루얼'은 캄보디아어로 편함을 뜻하는데, '편함'보다는 '쓰루얼'이 내 마음을 더 잘 표현하는 것 같다) 생각하는 대로 행동하며 살지 못한 스스로가 불편했던 한 달이다. (아, 찌질한 모습이 하나 더 추가되었다)

Leng_은선

가끔 아침 일찍 일어나 냉장고 바지에 모자를 꼭 눌러쓰고 시장에 간다, 반썬오 먹으러 ! 이제 이 즐거움도 한 달 남았다.

마음껏 누려야지 !

Pisey_지원

씨 엠 립 을 다 녀 왔 다 .
부모님이 맞벌이 하셔서 돌봄을 받지 못하는 아이들을 위한 교육센터에서 일주일간 지내고 왔다. 모든 것이 참 좋았지만 그 중 한 아이가 유독 기억에 많이 남는다. 만난 첫 날에 내가 혼을 냈다. 아이의 행동이 잘못되어서 고쳐야 한다는 생각에 그랬지만 일주일만 있는데 왜 내가 나서서 그랬을까. 하는 생각과 이제 그 아이와는 잘 못 지내겠구나 하는 생각이 가득 했다 .

Pisey_지원

그런데 다음날 아이는 날 보자마자
엄마라고 부르며 안겨왔다. 놀거나
수업을 할때에도 엄마라고 부르며
따랐다. 나보다 훨씬 작은 아이가 먼저
손을 내밀어 준 것이 참 많이
부끄럽고 미안하고 고마웠다. 남은
시간은 최대한 좋은 기억을
남겨주려고 많이 노력했고 나름
좋았다고 생각한다. 그런데 내가 더 그
아이가 보고싶다. 다른 활동을 할 때는
이런 생각까진 들지 않았는데 덕분에
참 애뜻한 기억이 하나 남았다. 나중에
시간내서 꼭 보러가고 싶다.

Pisey_지원

이제 1월 한 달 남았다. 한 달 남았다고 뭐 특별히 더 열심히 하거나 신경쓰지는 않고 싶다. 그동안에 덜 열심히 하거나 신경 안 쓰며 살았던 건 아니니까. 그래서 그냥 남은 시간도 지금처럼 잘 지내보려고 한다.

우리 다음 달에 만나요!